

중아시아 시장 접근 강화하는 중국

신 태 용
 (선임연구위원 · 국제산업협력실)
 tyshin@kiet.re.kr

〈요 약〉

중아시아를 향한 중국의 접근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과 중아시아(5개국)의 교역 규모는 연평균 50% 이상의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 중국은 중아시아 건설 시장에도 발빠르게 진출하여, 건설 시공 및 전자재 공급 등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활발한 중국의 중아시아 시장 진출은 양 지역의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자연조건이 큰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의 다양한 수출 상품과 중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에너지의 강한 상호 보완관계가 양 지역 간 교류 확산의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치외교적으로 경제협력의 큰 틀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중국과 중아시아 간의 '상하이협력기구', 대형 도매시장을 통한 국경무역 지원, 저렴한 비록적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앞세운 중국 기업의 현지 마케팅 강화 등도 양 지역 간 교류 증진에 시너지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아시아와의 교역 및 경제협력 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에서의 중국 기업과의 경합 회피 분야 확보와 중국 변경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아시아 진출의 모색, 중국의 서부대개발 지원을 통한 중국 현지에서의 대중아시아 진출 여력의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서론

현대판 '그레이트 게임'의 무대라 일컬어지는 중아시아는 석유·천연가스와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제2의 중동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중앙

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역안전 보장의 요지라는 점에 변함이 없어 대국의 이권이 지금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역사적인 사정으로 인해 구중주국인 러시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최근 중국이라는 오래되었으면

서도 새로운 거대한 이웃이 이 지역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실크로드의 향수와 더불어 종종 화제가 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제국에서의 중국의 약진, 그 현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시장과 투자처로서 우리 기업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듯하다. 본고에서는 최근 중앙아시아 시장 접근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동향과,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중앙아시아 제국이 구소련의 붕괴에 따라 독립한 지 15년이 지났다. 중앙아시아를 거론할 때 '지정학적 중요성'이 종종 거론된다. 그 이유로 세계경제에서의 위치라는 관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눈부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BRICs 가운데 러시아, 중국, 인도에 둘러싸여 있어, 이들 국가의 잠재적 시장, 투자처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석유·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주변국, 특히 대소비국인 중국에 대한 새로운 공급원으로 유망시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에너지 공급원인 중동의존도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자원·상품 수송 루트의 경유지가 되는 극동~구주 간, 러시아·구주~인도 간의 각기 동서, 남북의 각 루트에서 항공로 급유지·보세구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지역안전보장상으로도 중요하다. 중앙아시아는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거점이 되는 나라들과 마약의 원산지를 포함하는 데다 중국 서쪽지



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분리독립운동의 활동그룹과 민족적으로 동일하다. 이 지역이 불안정해지면 주변지역의 불안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세계경제, 그리고 안전보장상의 중요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시된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대국의 이해가 얽혀 있는 지역인 것이다.

2. 중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위상

역사적으로 보면 소련시절에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계획경제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제국은 현재까지 러시아가 경제·사회·문화의 각 방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다.

그런데 소련붕괴에 따라 중앙아시아 제국이 신생독립한 후에는 이들 제국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구미자본이 카스피해 연안의 지하자원 획득을 위해 대량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사회주의 시대에는 억압의 대상이었던 이슬람적 가치관에 대한 동일성을 들어 터키나 이란 등도 접근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러시아 극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소련 제국은 주변의 대국인 중국으로부터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급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으로서는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조달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한편, 중앙아시아의 자원 산출국 입장에서는 비러시아 경유루트를 통한 소비시장으로의 접근이 절실하다. 이 점에서 쌍방은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변지역으로 경제권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 호응이라도 하는 듯, 중앙아시아 시장에서는 러시아제와 비교해 저가격이면서 양질인 중국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표 1〉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의 무역·직접투자

단위 : 백만 달러

	중국과의 무역(2006년, 양복)		중국에 의한 직접투자(2006년 말)	
		구성비(%)		구성비(%)
우즈베키스탄	972	8.1	10*	0.5
카자흐스탄	8,359	69.3	2,080	97.3
키르기스스탄	2,226	18.5	45	2.1
타지키스탄	324	2.7	2*	0.1
투르크메니스탄	178	1.5	1*	0.05
중앙아시아 5개국	12,059	100	2,138	100

자료 : 중국 해관 통계 및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주 : *는 추정치.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무역·투자는 국가별로 편차가 크다. 중국 해관(세관)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무역과 투자의 최대 파트너는 카자흐스탄이다(〈표 1〉 참조).

지역그룹으로서 외교면을 살펴보면 중앙아시아 제국은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에 대한 대책이라는 안전보장상의 공통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도 포함된 ‘상하이협력기구(SCO)’¹⁾의 틀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3.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시장 접근 확대 동향

(1)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무역

1) 무역규모의 급증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무역은 2002년경부터 급증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4개국의 지역협력 조직인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족(2001년 6월)과 중국의 WTO 가입(같은 해 12월)이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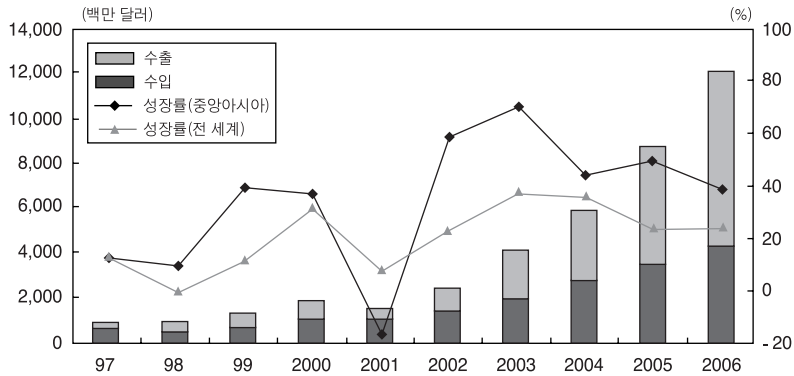
2006년 중국과 중앙아시아 주요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무역총액은 전년대비 38.3% 증가한 120억 5,900만 달러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무역총액 연평균 증가율은 52.0%로, 중국의 전체 성장률(28.3%)을 크게 상회한다(〈그림 1〉 참조). 참고로 2006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무역총액은 전년대비 24.3% 증가한 14억 200만 달러로 중국의 약 12%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에서는 카자흐스탄과의 무역액이 가장 많다. 2006년에는 83억 5,900만 달러로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카자흐스탄과의 무역 특징을 품목별로 살펴보자.

중국측 최대 수출품목은 ‘방적원재료 및 방적제품’이다. 2006년에는 전년대비 33.9% 증가한 15억 5,158만 달러에 달했으며, 전체의 32.7%로 약 1/3을 차지하였다(〈그림 2〉 참조). 그 가운데 약 60%가 ‘의류 및 동부속품’이다. 그 다음이 ‘기계·전기, AV제품 및 동부품’이다. 전년대비 37.4% 증가한 6억 8,548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제2위였던 ‘구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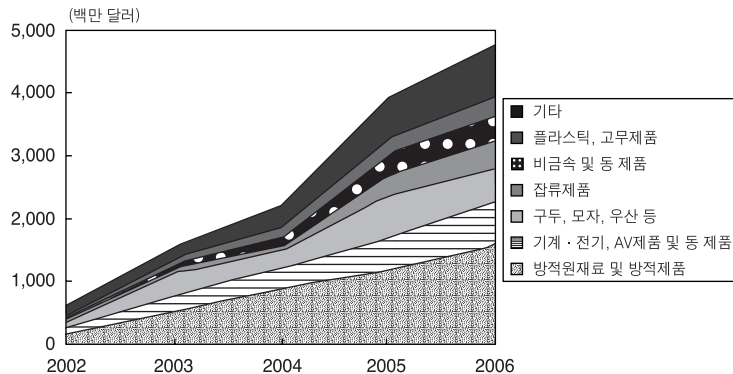
1) ‘상하이 협력기구’는 1996년 이래 운영되어 오던 ‘상하이 5’ (중국,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중앙아시아 3국) 회의에 우즈베키스탄이 2001년에 합류하여 성립하였다. 현재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4개국이 정회원국이며, 여기에 몽골, 파키스탄, 이란, 인도 등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연 1회 수뇌회의 외에 수상급 회합도 갖고 있다. 주로 회원국 간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에너지, 운수, 환경 등 다방면의 협력 심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림 1〉 중국과 중아시아 5개국의 무역총액 추이



자료 : 중국해관통계를 기초로 작성.
 주 : 좌측 눈금이 무역액, 우측 눈금이 성장률.

〈그림 2〉 중국의 품목별 對카자흐스탄 수출



자료 : 중국해관통계를 기초로 작성.

모자, 우산 등'을 웃돌아 14.4%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그 중 약 70%가 '기계류 및 동 부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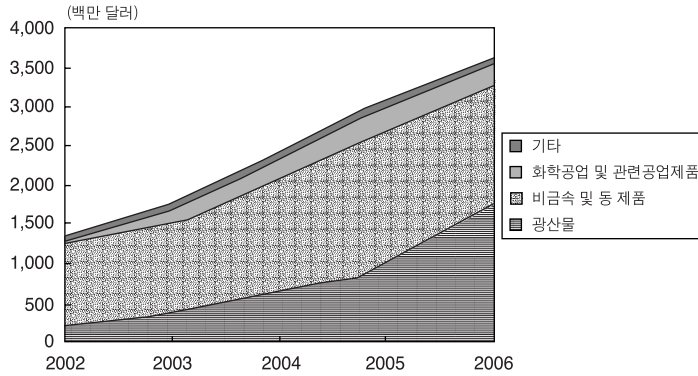
제3위는 '구두, 모자, 우산 등'이다. 전년비 24.3% 감소한 5억 3,709만 달러에 그쳤으나, 11.3%의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이 중 '구두 및 동

부분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상위 세 품목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한다.

한편, 수입은 '광산물'과 '비금속 및 동 제품' 두 품목이 90% 이상을 점한다. 최대 수입품목은 '광산물'이다. 전년대비 2.1배인 17억 2,635만

〈그림 3〉

중국의 품목별 對카자흐스탄 수입



자료 : 중국해관통계를 기초로 작성.

달러로 급증하였고, 47.9%의 점유율을 보였다(〈그림 3〉 참조). 이 가운데 약 80%가 원유 등 ‘광물성 기름 및 광물성 연료’이다. 2위는 ‘비금속 및 그 제품’으로 전년비 14.8% 감소하여 15억 8,339만 달러에 그쳤지만, 43.9%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이 중 ‘아연 및 동 제품’이 40%, ‘동 및 동 제품’과 ‘철강’이 각각 30%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경까지는 ‘비금속 및 그 제품’이 80% 남짓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2년 동안 ‘광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2006년에는 ‘비금속 및 그 제품’을 상회하게 되었다.

즉, 중국이 섬유·구두·기계 등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한편, 원유·아연·동·철강과 같은 자원과 소재를 수입하는 상호 보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수출에서는 기계

류, 수입에서는 원유의 급증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2) 거대 도매시장이 수출거래에 큰 역할

활황을 띠는 중앙아시아와의 무역은 그 중 약 70%가 국경을 접한 신지앙위 구르자치구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위 자치구에서 중국제품의 수출촉진을 담당하는 것이 도매시장이다. 몇 개의 도매시장 가운데 압권은 ‘우루무치화링(華凌)종합도매시장’이다. 위 자치구를 대표하는 도매시장 운영기업인 ‘신지앙화링공무(집단)유한공사’가 설립, 운영하고 있다. 100헥타르에 달하는 광대한 부지에 ‘화링국제상무공장’, ‘화링공무성’ 등 건축면적 60만㎡의 거대한 도매시장이 들어서 있다. 거래상품은 건자재, 가구, 가전, 일용품 등 다양한 품목이 갖추어

져 있다. 이 도매시장에는 6,000개 남짓한 점포가 입점해 있고, 하루 방문객은 10만 명에 달한다. 그 중 절반이 중양아시아에서 온 바이어라고 한다.²⁾ 시장 내에는 세관도 있어 원스톱으로 수출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다.

한편, 신지앙위구르자치구의 유력 무역회사인 '더후이실업집단(德匯實業集團)'도 우루무치 시내에 도매시장인 '후어처도우국제매입기지(火車頭國際購入基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장에는 약 1,400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취급상품은 완구, 의류, 피혁, 가전 등이 중심이다. 2006년 7월에는 우루무치市 정부 주최로 제1회 우루무치 수출입상품교역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3) 고조되는 상호 보완관계가 교역 활황의 기반

중국과 중양아시아는 무역 면에서 강한 상호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1993년에는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하는 등 자원·에너지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자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에너지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공급루트를 다양화해야 하며, 그 때문에 중양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원가격의 상승으로 구매력이 증가한 중양아시아는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 유망한 시장이다.

중양아시아로서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값싼 기계류, 섬유제품이나 가전 등 생활필수품은 필수불가결한 상품이 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는 해도 중국과 중양아시아(주요 5개국)의 무역은 중국 전체 교역의 0.7%에 지나지 않으나(2006년), 상호 보완관계의 고조를 고려하면 당분간 중국과 중양아시아의 국경무역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2)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자원 협력

중양아시아의 석유·천연가스 자원은 중국에 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다. 조달처 다변화라는 목적 때문만이 아니라, 에너지안전보장 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1993년에 석유(석유 및 석유제품)의 순수입국이 되었다. 중국은 하루 약 3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제6위의 산유국이지만 석유 소비량이 하루 700만 배럴을 넘기 때문에 부족분을 국외조달해야 한다. 대륙으로 이어진 중양아시아는 중국으

2) "廣がる中央アジア市場接近する中國", 「ジェットロセンサ-」, 2007년 6월호.

로서는 가장 가까운 원유 공급원이다.

1) 기업매수로 유전 자산 권익을 확보

중국이 중앙아시아·코카서스의 자원분야에 진출해 있는 국가로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4개국이다. 이 가운데 중국은 아제르바이잔에도 가동 중인 유전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부분적인 탐광이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중앙아시아의 석유·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진출은 1997년 6월의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에 의한 카자흐스탄 Aktobemunaigaz 주식 60.2% 취득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에도 고액의 기업매수로 주목을 끌었다. 2005년 9월에는 CNPC가 41억 달러에 캐나다 기업 페트로카자흐스탄을, 2006년 12월에는 중신집단(CITIC)이 19억 달러에 캐나다의 Nations Energy를 매수하는 등 카자흐스탄의 유전 자산³⁾ 취득이 이어졌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에게는 셰어오일⁴⁾ 취득이라는 수법을 통한 최대의 원유

공급국이다. 중국 기업의 카자흐스탄에서의 셰어오일 생산량은 2005년에는 석유환산 하루 20만 배럴로 국외 셰어오일의 30%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CITIC의 매수분이 더해져 2007년에는 동 생산량이 석유환산으로 하루 26만 배럴(카자흐스탄 원유 생산량의 약 16%)에 이를 전망이다.

2) 파이프라인 완공으로 원유조달 확대

중국은 1997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원유 수입을 개시하였다. 최근 수년 동안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만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량은 1998년의 하루 8,000배럴에서 2006년에는 하루 약 5만 배럴로 증가했으나, 이는 중국의 원유수입 전체의 1.8% 정도이며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양인 하루 약 32만 배럴(수입 전체의 11%)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2005년 12월 카자흐스탄의 아타스에서 중국 신지앙의 아라산코우를 향한 원유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2006년 7월 원유의 상업수송 개시에 따라 앞으로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 파이프라인의 총길이는 약

3) 모든 매수에서 차후 카자흐스탄 국영석유회사 KazMunayGas가 권익의 일부를 취득하였음. 또한 CNPC의 자회사인 중국석유(페트로차이나)는 2006년 12월에 모회사 CNPC로부터 페트로카자흐스탄의 권익(CNPC 소유 67%)을 약 27억 달러에 취득하였음.

4) 이권에 따라 취득한 몫의 원유(에쿼티 오일).

1,300km로 수송능력은 하루 20만 배럴(하루 40만 배럴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사업자는 카스트랜스오일과 CNPC의 합병기업이다.

2006년 위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송량은 1,240만 배럴로 수송능력을 크게 밑돌았다. 카스피해 주변에 보유하고 있는 켄키야크 및 북브자티 양 유전은 이 중국 방향의 원유 파이프라인과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아 당분간 셰어오일 전량을 수송할 수는 없다.

3) 천연가스는 사업화 조사단계

원유 파이프라인은 가동했으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설치에 아직 요원한 듯하다. 중국을 향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계획에 대해서 CNPC는 카자흐스탄의 KazMunayGas와 사업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단계이다. 파이프라인의 총길이는 중국 국경(신지앙)까지가 약 3,000km로, 설계수송능력은 연간 300억㎥이다. 카자흐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을 향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은 240억㎥로 2010년까지 생산량을 배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스전 개발상황이 불투명한 데다가 파이프라인 건설이 아직 미착공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전해졌던 2009년 중국을 향한 공급개시 스케줄은 그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내의 또 다른 천연가스 생산 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공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2006년 4월 니야조프 대통령(당시)의 방중 당시 천연가스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 양국 정부는 중국 신지앙을 향한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암다리아강 오른쪽 기슭 지역의 천연가스광구 공동개발에 합의하였다. 사업자는 CNPC로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부터 연간 300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암다리아강 오른쪽 기슭부터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중국 신지앙까지 약 3,0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신지앙 타림분지의 '서기동수(西氣東輸)' 파이프라인에 접속시킨다는 계획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3조㎥이며 그 절반이 암다리아강 오른쪽 기슭에 부존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 지역은 거대한 가스전 발견이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탐광단계에 있고 파이프라인도 미착공 상태이므로 카자흐스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9년에 대중 공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3) 중국의 중아시아 건설시장 진출

과거 러시아 건설회사와 러시아산 전자재의 독무대였던 중아시아 건

설시장에 최근 중국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로 중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양호한 품질이 호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 법규 준수로 신뢰 확보

1997년에 천도한 카자흐스탄에서는 천연자원 개발에 기반을 둔 고성장 속에 새 수도 아스타나와 상업활동의 중심인 옛 수도 알마티 등이 공전의 건설 붐으로 들끓고 있다. 건설시장에서 중국은 후발주자이지만, 러시아나 터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2005년에 진출한 대기업 건설회사인 베이징건축집단유한책임공사(北京建工集團有限責任公司)는 아스타나市 최초의 수주안건인 29층짜리 5성 호텔을 건설 중이다. 같은 회사의 아스타나 사무소에 의하면 많은 프로젝트가 중앙정부나 아스타나市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실시되며, 중국 기업에는 건설사업의 우선권을 주고 있다. 중국 기업은 '법률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평가가 높아진 결과라고 한다.⁵⁾

건설 현장에는 중국의 숙련기술자가 다수 필요하며, 프로젝트마다 중국인 노동자의 수용 한도가 정해진다.

이번 호텔 건설의 경우 연간 400~500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본국에서 불러들일 수 있다. 단, 같은 수의 카자흐스탄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카자흐스탄 측에 기술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별경제구로 지정되어 있는 아스타나市에서의 사업에서는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더욱이 특별경제구의 총면적은 지정될 당시보다 일곱 배나 확대되었다. 중국의 건설회사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현지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신경을 쓴다. 대량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민감한 카자흐스탄 당국을 최대한 배려하고, 위법행위 방지 등 중국인 노동자의 행동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자재의 80%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한랭지용 전자재로는 러시아제나 국내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2) 정교한 마케팅 전략

중국제 건설기계의 수요도 왕성하다. 중국의 몇몇 대기업 건설기계 제조업체의 공식 딜러인 신지앙야마(新疆野馬) 알마티 지점은 2006년의 매출이 전년대비 70% 증가한 7,000만 달러 이상이다. 2007년은 1억 달러를

5) 앞의 주 2) 참조.

목표로 하고 있다. 잘 팔리는 상품의 평균가격은 덤프카나 굴착기가 3만 5,000달러, 자동크레인 10만 달러 등이다. 동종 건설기계라면 러시아제보다도 30~40% 정도 낮은 가격이다. 중국에서는 생산현장의 ISO 시리즈 취득도 진행하고 있는 한편 일본계 건설기계 제조업체와의 기술 제휴나 구주 제조업체의 기간부품 적용을 통해 일정한 품질수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납기도 빠르다. 러시아제는 발주부터 납품까지 통관을 포함하여 3개월이 걸리지만, 위 회사에서는 20일이면 된다.

리스회사를 통한 마케팅 공략도 효과적이다. 그 지역의 아스타나 파이낸스나 알리안츠 리싱 등이 파트너이고, 거래를 시작한 2002년 이래 매출의 40% 이상이 이들 리스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풍부한 수리용 부품을 항상 비축해 놓는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의식한 중국 기업의 꼼꼼한 영업방침도 매출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

앞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접근 강화는 자원·에너지 공급선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중국과 자원 개발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추구하는 중양아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데 기인한다

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과 중양아시아의 대외교류 증진에는 상호 교역상품의 강한 보완관계 이외에도 양호한 교류 인프라 또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우선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중양아시아 사이에 '상하이협력기구'라는 정상급 정치외교 및 경제협력 상설 협의기구가 있어 경협이 큰 틀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중국-중양아시아 간 교역은 상호 간의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신지앙위구르자치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국경무역 도매상을 운영하고, 통관업무를 지원하는 등 무역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양 지역 간 무역 촉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이 중양아시아 건설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도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 점도 양 지역 간 교류 확대를 가져온 요인의 하나로 평가된다.

중국의 중양아시아를 향한 접근 강화는 중양아시아에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반면에, 수용자 입장에서는 자본과 노동자의 대량 유입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기도 하다. 중국과의 불균형적인 무역


구조의 고착화, 수자원 문제 등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양 지역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가 초기 단계이며, 양 지역 간의 강한 상호 보완관계를 고려한다면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기업으로서 중국-중앙아시아 간 경제교류 활성화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원·에너지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원·에너지가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중앙아시아 교역액은 중국의 1/10을 조금 넘고 있을 뿐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이 자원개발로 경제성장을 위한 자금을 확충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역 확대의 잠재력은 매우 풍부하다.

둘째, 중앙아시아 진출 시 중국과의 경합 및 협력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출 분야로는 중국 제

품과 가격 면에서 경합하지 않는 고부가가치 품목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중앙아시아와 국경무역이 활발한 중국의 변경지역 자치구(예 : 신지앙위구르자치구)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중중앙아시아 수출을 추진하는 방안도 유효할 것이다.⁶⁾

셋째, 중국의 서부대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서부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전략도 구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부대개발은 중국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하나이다. 서부대개발, 특히 신지앙위구르자치구 등 중앙아시아와의 접경 지방에 대한 개발 지원은 동 지역의 생산력과 소득 증대는 물론 대중중앙아시아 수출 여력의 확충도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대중중앙아시아 비즈니스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 일본의 積水化學工業은 2005년 중국 신지앙위구르자치구에 관개용 강화플라스틱관 생산 공장인 新疆永昌積水複合材料有限公司를 설립, 동 생산 제품을 2005~2006년에 걸쳐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였다. 「ジェットロセンサ-」, 2007년 6월호 참조.

<부표> 중앙아시아 5개국 주요 경제지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면적(㎢)	44만 8,900	272만 4,900	19만 9,900	14만 3,100	49만 1,200
인구(2006년 초)	2,641만 명 ¹⁾	1,501만 명	510만 명	680만 명	630만 명(04년 초)
수도(인구)(상동)	타슈켄트(216만 명 ¹⁾)	아스타나(53만 명)	비슈케크(78만 명)	두산베(63만 명)	아슈하바트(83만 명)
민족	우즈베크인(80%), 러시아인(5.5%), 타지크인(5.0%), 카자흐인(3.0%) 등	카자흐인(53.4%), 러시아인(30.0%), 우크라이나인(3.7%), 우즈베크인(2.5%), 독일인(2.4%) 등	키르기스인(64.9%), 우즈베크인(13.8%), 러시아인(12.5%), 우크라이나인(1.0%) 등	타지크인(64.9%), 우즈베크인(25.0%), 러시아인(3.5%) 등	투르크멘인(85.0%), 우즈베크인(5.0%), 러시아인(4.0%) 등
언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키르기스어, 러시아어	타지크어, 러시아어	투르크멘어, 러시아어
종교	이슬람교 수니파	이슬람교 수니파	이슬람교 수니파	이슬람교 수니파	이슬람교 수니파
주요 산업	면섬유, 천연가스, 식품가공 등	석유, 광업(동, 아연), 철강 등	섬유, 광업(금), 식품가공 등	알루미늄 생산, 기계제작 등	석유·천연가스, 석유제품, 식품가공 등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00년 1월 선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06년 12월 선출)	쿠르만베크 바키예프(05년 7월 선출)	에모말리 라흐모노프(99년 11월 선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07년 2월 선출)
실질GDP성장률(2006년)	7.3% ²⁾	10.6%	2.7%	7.0%	6.5% ⁴⁾
국민총소득(GNI) 총액(2005년)	135억 1,000만 달러	443억 6,100만 달러	22억 9,400만 달러	21억 7,800만 달러	66억 1,500만 달러(04년)
국민총소득(GNI) 1인당(상동) <PPP>:2,020달러)	510달러(구매력평가 <PPP>:2,020달러)	2,930달러(PPP:7,730달러)	440달러(PPP:1,870달러)	330달러(PPP:1,260달러)	1,340달러(PPP:6,910달러)(0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06년)	6.8% ³⁾	8.6%	5.6%	11.9%	7.9% ⁴⁾
환율(07년 2월 말)	1,243.86숨	123.71텡게	38,3907숨	3,4386소모니	5,200마나트
현행통화 도입시기	1994년 6월	1993년 11월	1993년 5월	2000년 10월	1993년 11월
대외채무잔고(2006년, 추계치)	47억 1,300만 달러	538억 9,000만 달러(06년 6월말)	24억 8,300만 달러(06년 6월말)	8억 2,900만 달러	24억~50억(01년 추계치)
외화준비고(2006년, 추계치)	29억 8,600만 달러	152억 6,000만 달러	6억 2,100만 달러	2억 920만 달러	35억 1,800만 달러
외국직접투자누계액(1970~2005년)	10억 5,700만 달러	211억 4,200만 달러	5억 5,700만 달러	4억 9,500만 달러	14억 6,400만 달러
수출액(2005년)(성장률, 전년동기비)	54억 880만 달러 ³⁾ 11.5% ³⁾	278억 4,900만 달러 38.6%	6억 7,200만 달러 -6.6%	9억 900만 달러 -0.7%	49억 3,900만 달러 ⁵⁾ 27.6% ⁵⁾
주요 수출품목	면섬유, 에너지제품, 서비스, 비철금속, 화학제품	석유·천연가스, 석유제품, 비철금속, 화학제품, 기계설비, 곡물	면섬유, 식료품, 금	알루미늄, 전력, 면섬유	에너지제품, 석유제품, 면섬유
수입액(05년)(성장률, 전년동기비)	40억 9,130만 달러 ³⁾ 7.2% ³⁾	173억 5,300만 달러 35.8%	11억 800만 달러 17.7%	13억 3,000만 달러 11.6%	36억 3,800만 달러 ⁵⁾ 9.6% ⁵⁾
주요 수입품목	기계설비, 화학제품, 비철금속	기계설비, 식료품, 철강	에너지제품, 화학제품, 기계설비, 식료품	전력, 석유제품, 기계설비, 식료품	기계설비, 화학제품, 식료품

자료 : 「ジェットロセンサ-」, 2007년 6월호.

- 주 : 1)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인구동태 2005」.
 2) 「인테르팍스 통신」, 2007년 2월 7일자.
 3)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우즈베키스탄 통계연감 2005」.
 4) IMF 웹사이트(추정치).
 5) 「인테르팍스 통신」, 2006년 2월 11일자.